

· 작성부서	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		
· 담당자	상품제도팀장 : 박병용(3774-9363), 팀원 : 조진우(3774-9366)		
· 배포일	2015. 10. 5(월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2~4085)

※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ETF 등 증권상품시장 발전방안 추진

I. 추진 배경

- 한국거래소는 저금리·고령화시대 ETF·ETN 상품이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
 - 정부의 ‘ETF시장 발전방안(10.2)’에 적극 부응하여, 다양한 신상품 적시 공급, 시장관련 규제 완화 등 거래소 소관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
 - '14.11월 개설된 ETN시장이 ETF시장과 자산관리의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

▶ 거래소의 증권상품(ETP : Exchange Traded Product)을 중위험. 중수익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육성

II. 그 간의 성과

- (ETF시장) '02.10월 시장개설 이후 시장규모, 상품다양성 측면에서 괄목한 만큼 성장함
 - 순자산이 0.3조원('02)→20.7조원('15.9)으로 69배 이상 성장
 - 상장종목이 4개('02)→191개('15.9)로 증가하여 투자대상 자산, 지역 및 투자전략이 다양화됨
 - 특히, 올해들어 32종목이 신규상장되어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나, '14년 이후 순자산 및 거래대금의 성장세는 주춤

- (ETN시장) '14.11월 시장개설 이후 불과 10개월만에 상품 구성 및 거래규모 측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함
 - 상장종목이 10개('14.11)→55개('15.9)로 증가하여, 국내외 전략형·바스켓 및 해외 원자재 등으로 상품 다양화
 - 거래대금이 1.1억원('14.11)→334억원('15.9)으로 303배, 시가총액은 4,697억원('14.11)→1조 4,472억원('15.9)으로 3배 이상 성장

※ **2015년 ETP(ETF+ETN) 신규상장 목표 상향**
 - 올해 신규상장 목표를 기존 80종목(ETF 30, ETN 50)→100종목으로 상향 조정 (10월중 KTOP 30, KOSDAQ 150 지수 등 신규지수 관련상품 출시 계획)

III. 증권상품시장 발전방향

- (2020 비전 수립) ETP시장을 저금리·고령화시대 종합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 및 성장목표 설정

비전 100세 시대 증위험·증수익의 대표 투자수단으로 육성

2020년 성장 목표 <small>(ETF+ETN)</small>	순자산총액 60조원 <small>(50+10조원)</small>	상장종목수 600종목 <small>(380+220종목)</small>	거래대금 2조원 <small>(1.5+0.5조원)</small>
'15.9월 <small>(ETF+ETN)</small>	22조원 <small>(20.7+1.5조원)</small>	246종목 <small>(191+55종목)</small>	0.7조원 <small>(0.7+0.03조원)</small>

➔ 현재보다 **2배 이상 성장**하여 **아시아 증권상품시장 리더**로서의 역할 수행

IV. ETF시장 발전방안

- 1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적시 공급
- 2 불필요한 시장 규제를 대폭 개선
- 3 괴리율 관리 강화 및 투자정보 제공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강화
- 4 ETF 시장의 국제화 추진
- 5 비과세 해외주식형 ETF 도입(기획재정부 협의)

1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적시 공급

① (상장심사기간 단축) 45일 → 20일

- 현행 ETF 상장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
➔ 신속한 상품 공급으로 급변하는 투자수요에 적시 대응

② (수요맞춤형 ETF 개발)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상장

- 연기금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수*·상품 개발 추진
* 예) 기업지배구조지수, 총수익지수(주가수익 외에 배당수익까지 고려한 지수) 등
- 개인투자자의 관심 및 투자비중이 높은 테마형*(핀테크, 바이오 등) 상품 상장
* 현재 상장상품(2종목) : TIGER 중국소비테마, KINDEX 한류
➔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제공 확대

③ (파생형 ETF 다양화) 다양한 레버리지 . 인버스 ETF 상장

- 국내·외 대표지수 일간수익률의 -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장
* 주요 선진국(미국 ±3배, 유럽 ±2배, 일본 ±2배)에서도 파생형 ETF가 활성화
- 섹터별 레버리지·인버스 ETF 상장
* 섹터지수선물이 있는 코스피200 에너지/화학, 정보기술, 금융, 경기소비재 지수에 대해 우선 상장하고, 향후 확대 추진
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위험관리 . 투자 수단 제공

2

불필요한 시장규제의 대폭 개선

① (중복상장 허용) 원칙적 제한 → 원칙적 허용

- 동일지수 상품에 대한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특수한 경우*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

* 독창적 지수 개발에 자산운용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ETF 상장 시 : 3개월간 해당지수 추적상품 상장 제한

➔ 운용사간 자율경쟁 유도 및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

② (운용규제 완화)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 허용 및 자산구성방법 완화

- ETF가 추적하는 기초지수의 정체성이 유지되고,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경우 기초지수 산출기준*의 변경 허용

* 종목 선정방법, 주기, 종목 비중 등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핵심 기준

- 다만,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변경 1개월 전부터 공시 의무화

- 기초지수가 현물인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*에 한해 장내선물을 이용한 운용을 허용

* 선물지수가 없어 원활한 상품개발이 곤란한 해외시장에 한해 허용
다만, 현.선물 베이스스 및 롤오버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적은 경우로 제한

➔ 다양한 신상품 개발 제약요인 해소 및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

③ (관리종목 규제 개선)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대금 요건* 폐지

*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

- 지정의 실익이 적고* 운용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래대금 요건을 폐지

* 거래가 부진하더라도 유동성공급자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매매는 문제가 없음

➔ ETF 특성을 반영한 시장관리로 거래 활성화 도모

3

과리율 관리 강화, 투자정보 제공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강화

① (과리율 관리 강화) 과리율* 위반사항에 대한 LP평가 강화 및 ETF 상장심사 강화

* 과리율 = (시장가격 - 순자산가치) ÷ 순자산가치, 위반기준 : 국내 3%, 해외 6%

- LP평가 시 과리율 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종가기준 과리율 평가를 장중기준 과리율 평가로 변경
 - 과리율 평가비중도 2배로 상향(현행 10점 → 20점)
- 향후 변동성이 높고 헤지수단이 불완전하여 과리율 발생 가능성이 높은 ETF에 대한 심사를 강화

➔ 장중 과리율 관리 강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거래편의 제고

※ <참고1> 현행 과리율 위반시 조치사항

- (과리율 발생시 공시의무) 과리율 2%(국내지수 1%) 이상 발생시 익일 정규시장 개시 이전에 과리율 발생사실 시장안내 공시
 - (과리율 위반시 LP교체 요구)
 - ① 당해분기 20일 이상 과리율 위반시 평가등급 최하(F)인 LP 교체
 - ② 2분기 연속 20일 이상 과리율 위반시 해당종목 LP 전부 교체
- * LP 교체기준에 해당된 날로부터 1개월내 다른 LP와 유동성공급계약 미체결시 상장폐지

② (상품분류체계 개선) 상품분류 체계적 개편 및 정보제공 확대

- ETF 상품의 속성 및 위험도에 따라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거래소 및 운용사 간 상이한 상품 분류체계를 일원화
-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자산, 운용방법 및 투자위험 (현재 미공표) 등 정보를 제공

➔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투자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

③ (비교공시 시스템 구축) 상품간 다양한 항목별 비교정보 제공

- 투자자가 각 상품별 운용성과 및 투자위험 등을 손쉽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ETF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

➔ 상세한 비교정보 제공으로 투자상품 선택 편의성 제고

④ (레버리지ETF 위험관리 강화) 대용가격 사정비율 인하 및 투자자 교육 강화

-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여 대용가격 사정비율 하향 적용(70%→60%)

- 파생형 ETF의 투자위험 관련 영상교육 자료 별도 제작 및 배포
 -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회원사에도 배포하여 투자자 교육자료로 활용

➔ 리스크 관리 효율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도모

4 ETF 시장 국제화 추진

① (해외지수상품 다양화) 다양한 글로벌 투자상품 제공

- 현재 공모펀드가 출시되지 않은 해외 유망섹터 및 신흥개발국 ETF 상품(베트남 등) 상장
- 위안, 엔 등 통화 ETF 다양화 및 해외채권(중국국채) ETF 상장
- 세제상 유리*한 투자회사형 ETF 도입

*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외지수형 ETF는 모두 투자신탁형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되나, 투자회사형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

➔ 해외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

※ <참고2> 해외지수형 ETF의 유형별 과세 현황

구 분		국내 ETF(국내상장)		외국 ETF (해외상장)
		투자신탁형	투자회사형	
매도 시	증권거래세(0.3%)	X	○	X
	배당소득세(15.4%)	○	X*	X
	양도소득세(22%)	X	X	○
분배 시	배당소득세(15.4%)	○	○	○

*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매년 배당할 경우 비과세

2 (외국ETF 상장) 외국 우수 ETF의 국내상장 추진

- 국내에 출시되기 어려운 상품 중 투자수요가 있는 일반상품(Commodity) ETF*를 우선 상장하고, 향후 다양한 외국 ETF의 국내상장 추진

* SPDR Gold, iShares Silver Trust ETF 등

➔ 해외 직접투자 수요의 국내 흡수

※ 외국 ETF 상장을 위해 관련법규 개정 진행 중

3 (역내 교차거래 활성화) 해외거래소와 교차상장 및 공동지수상품 상장

-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아시아지역의 거래소*와 대표지수상품 교차상장 활성화 추진

* 우선, 대만거래소와 ETF를 양국 시장에 교차상장('16년)

-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투자현황을 반영한 아시아지수*를 각국 거래소와 공동개발하고, 관련 ETF 등 상장

* 기관투자자의 주요 투자처인 한국, 홍콩, 대만, 중국, 일본, 인도 등의 아시아시장을 커버하는 아시아종합지수(Asia Composite Index)

➔ 아시아 역내 투자활성화 및 역내 허브시장 도약기반 마련

5 비과세 해외주식형 ETF 도입

- '16년부터 시행 예정인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ETF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사 상장 지원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(현재 업계 의견수렴 중)

V. (기타) ETN시장 조기 정착 추진

- ◇ 시장개설 초기 상장종목수, 발행규모 등에서 큰 폭의 성장 시현
- ◇ ETN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.전략형 등 다양한 신상품 공급 추진

① (신상품 공급 확대) 다양한 전략형 ETN 제공

- 레버리지 ETN 및 변동성지수선물 ETN 상장
 - 손실위험이 축소된 중위험·중수익 구조의 ETN 도입
- ➔ 투자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 공급

② (글로벌 상품 라인업 확충) 해외 유망시장 ETN 상품 확대

- 중국, 인도 등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접근성이 부족한 동남아, 중동 등 프론티어시장으로 범위 확대
- ➔ 투자수단 다양화를 통한 해외 직접투자 수요

③ (발행회사 확대) 국내증권사 → 글로벌 IB 발행 참여 유도

- * 현재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사 9개사 중 7개사가 ETN 발행
-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인 외국계증권사*가 ETN을 발행하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상품공급자간 경쟁 유도

*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외국계 국내지점이 외국계 본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ETN 발행

➔ 발행사 확대로 시장규모 성장 도모

VI. 추진 일정 및 필요조치 사항

□ ETF시장 발전방안의 신속한 이행 추진

- 거래소 규정 개정 및 시스템의 적시 개발(10월~12월)

<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및 필요조치>

	추진 과제	추진 일정	필요조치 사항
다양한 상품 적시 공급	• 상장심사기간 단축	4분기	• 상장심사지침 개정
	• 수요맞춤형 ETF 개발	계속	
	• 파생형ETF 다양화		• 상장심사지침 개정
불필요한 시장규제 개선	• 중복상장 허용	4분기	• 상장심사지침 개정
	• 운용규제 완화		• 상장심사지침 개정
	• 관리종목 규제 완화		• 상장규정 개정
투자자 보호 강화	• 괴리율 관리 강화	4분기	• LP 평가기준 개정
	• 상품분류체계 개선	4분기	• 시스템 개발
	•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	'16년	
	• 레버리지ETF 위험관리 강화	4분기	• 업무규정세칙 개정
ETF시장 국제화	• 해외지수상품 다양화	계속	• 관련법규 개정
	• 외국ETF 상장	'16년	• 관련법규 개정
	• 역내 교차거래 활성화		
비과세 ETF 도입	• 비과세 해외주식형 ETF 도입	'16년	• 기재부 협의 • 업무규정 개정

□ ETN시장 조기 정착 추진

- 레버리지 ETN, 손실제한형 ETN, 변동성지수선물 ETN 상장 ('16년~)

□ ETP시장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

- 자산운용업계·발행사 임원 간담회 개최(10월중)
- 2015년 글로벌 ETF 컨퍼런스 개최(10.15일, 콘래드호텔)
- 기관투자자 대상 ETP 전문가 포럼 개최(12월)
- 해외 투자자 대상 현지 로드쇼를 통한 한국시장 및 대표상품 소개(11월~12월, 상해·대만)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